

‘월천낙수’ 꿈에 몰린 개미들… 커버드콜 ETF의 수익 함정

9월 주요 4종에 개인 6521억 순매수
커버드콜 순자산 3년여 만에 24조
고배당·파킹형 ETF에도 자금 몰려

상승장선 지수 대비 수익률 뒤처져
하락장 방어 효과도 기대보다 제한
분배율 아닌 총투자수익률 따져야

“월천낙수”

은퇴 후 ‘월’에 ‘천’만원을 버는 ‘낙수(이름)’라는 뜻으로, 올 초 종영한 인기 드라마 ‘서울 자카’에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이 야기의 주인공 김낙수(류승룡 역)의 꿈이다. 김씨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금 5억원에 은행 대출 5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변동리 상가에 투자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성급하게 투자한 대가로 김씨는 ‘서울 자카’마저 잃게 된다.

김씨의 계획대로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꿈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월세로 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월 300만원을 손에 쥐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월천낙수’의 꿈을 꾸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배당·파킹형 ETF로 이어지고 있다.

◆“넌뛰기 장세에서도 수익” 커버드콜로 뭉치듯



따능AI로 생성한 ‘커버드콜 몰린 개미…수익률은 지수 ETF에 25%p 뒤처져’ 관련 이미지.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9월 한 달간 주요 커버드콜 ETF 4종을 65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가 2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1776억원),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1427억원), ‘RISE 코리아밸류업유틸리티고정커버드콜’(1202억원) 순이었다. 반면 코스피200을 그대로 추종하는 ‘KODEX 200’은 315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커버드콜 2종(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의 순매수액(3203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223억원에서 올해 5월 말 24조 549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품 수도 6개에서 50개로 증가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팔아 받은 옵션 프리미엄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춘 ETF의 설정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주 비중이 높은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ETF의 상장좌수는 지난달 30일 1590만좌에서 이달 8일 1720만좌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KODEX 고배당주ETF의 상장좌수는

1990만좌에서 2000만좌로 늘었다.

최근에는 파킹형 ETF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자금 유입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인 5개 종목이 파킹형 ETF였다. 이 기간 이들 5개 종목에 유입된 자금만 총 1조2868억원에 달한다. 종목별로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 가장 많은 4204억원이 유입됐으며 RISE 머니마켓액티브가 35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잔존만기 1년 미만의 국고채·통안채에 투자하는 KODEX 단기채권에도 2134억원이 유입됐다. 이 밖에도 ACE 머니마켓액티브(1715억원), PLUS 머니마켓액티브(1271억원) 등이 순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파킹형 ETF는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L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원금 손실 위험이 낮으면서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단기 대기자금이 몰리는 상품이다.

◆“월천낙수”는 꿈인가

커버드콜·고배당·파킹형 ETF가 개미들에게 ‘월천낙수’의 꿈을 이뤄줄까.

커버드콜 ETF만 놓고 보면 꿈은 멀어 보인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의 최근 1년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기준)은 106.60%로 KODEX 200(131.93%)보다 25.33%포인트 낮았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파를 창출하는 커버드콜 액티브ETF” 보고서에서 커버드콜은 “상

승장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상승분은 누리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며 코스피 상승 국면의 수익률 부진은 “전략의 구조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는 버텨줬을까. 이것도 아니다. 코스피200이 6월 30일 1370.73에서 7월 14일 1092.23으로 2주 만에 20.3% 급락하면서 최근 3개월 KODEX 200의 수익률은 -20.56%를 기록했다.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은 -20.30%로 차이는 0.26%포인트에 그쳤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비슷하게 빠진 셈이다.

극심한 변동성 구간(7월 14일~9월 30일)에서도 상품마다 수익률은 엇갈렸다. 이 기간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는 9.78% 올랐지만 이를 비교지수로 삼아 7월 14일 상장한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의 수익률은 0.53%에 그쳤다.

상품 특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심 선임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옵션 매도비중이나 행사가격 등이 다르면 “동일한 분배율도 다른 위험을 내포”한다며 “투자성과는 월 분배금이나 표시 분배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준가격 변동을 포함한 총투자수익률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율 46%대로 ‘추락’

18년9개월 만에 금융위기 당시 수준
SK하이닉스도 50%선 밀돌며 약세
올해 코스피서 197조 넘게 순매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율도 연일 내리며 금융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46.38%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엔 46.37%까지 내렸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월 11일(46.35%) 이후 약 18년 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뒀던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 초 52.40%까지 올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글로벌 증시 쇼크로 50%를 이탈했고, ‘7천피’와 ‘8천피’를 잇달아 돌파했던 5월까지의 48%대를 유지했다. 이후 7월에 들어서며 47%를 벗어났고, 점차 밀리며 이달 46% 초반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IMF 위기 때인 1998년 12월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인 107조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음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됐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49.59%를 나타냈다.

2023년부터 줄곧 50% 이상을 유지, 2024년에만 해도 56.41%까지 끌어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이 숫자는 지난달 말부터 50%를 밀돌며 8거래일째 49%대에서 내뱉세다.

특히 올 초 고점(54.64%)과 비교하면 5%포인트 내렸다. 이들 ‘투 톱’에 대한 보유율이 떨어지면서 두 종목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보유율도 올 초 40.87%에서 38.09%로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황이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누적 197조 원 넘게 순매도 중이다. 지난해 4조원대 순매도, 2024년 보합, 2023년 11조원대 순매수 등과 비교하면 역대급 규모다.

/신하은 기자 godhe@

애프터마켓서 개인 ‘삼성’ 외인 ‘하이닉스’

거래소 애프터마켓 한 달 집계
개인 삼성전자우 723억 순매수
외국인 SK하이닉스 1015억 매수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의 문을 연 지 약 한 달이 다가온 가운데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우였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우선주인 삼성전자우(723억 원)였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675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4억7000만원), 아수페타스(35억9000만원), DB하이텍(35억3000만원) 등도 순매수상위권에 올랐다.

가장 큰 규모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이에 대한 순매도액은 921억4000만원에 달했다.

삼성전기(315억3000만원), 현대모비스(128억3000만원), 두산에너빌리티(105억5000만원), 한전기술(80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반대로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액은 1015억4000만원이었고, 삼성전기가 330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우(83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504억9000만원)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SK하이

닉스를 파는 동안 외국인도 그 반대편에 선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정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인과 외국인 모두의 순매도 상위 1·2위에 오른 것과 다른 모습이다.

기관은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131억5000만원어치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를 157억1000만원어치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기존 오후 4~6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4~8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도 저녁 시간에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개장 이후 이달 8일까지 16거래일간 거래소 애프터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645억원, 거래량은 약 5592만2000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정규장 거래대금의 약 4.7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NXT 애프터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7008억원, 거래량은 약 1173만7000주였다.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NXT가 거래소의 약 1.35배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보면 양상이 달랐다. 코스피 종목의 일평균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은 거래소가 7712억원, NXT가 1조5129억원으로 NXT가 우위를 점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거래소가 4933억원으로 NXT의 1879억원보다 2.5배 넘게 컸다.

/신하은 기자

금투협, 日 자산운용협회와 협력 강화

양국 시장·제도 정보 공유
임직원 교류·공동행사 추진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39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 기간 중 일본 자산운용협회(IMAJ)와 양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직원 교류와 양국 자산운용 시장·제도 관련 정보 공유,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도쿄에서 열리는 ‘IMAJ 창립 컨퍼런스’에는 금투협이 연사를 파견한다. 한국 자산운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 경험, 장기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업계의 대응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요시오 히사다 IMAJ 회장이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1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초청돼 방한한다. 히사다 회장은 방한 기간 금투협 회원사들과 만나 일본 자산운용시장의 동향과 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양국 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일본자산운용협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금융투자협회

어 실질적인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양국 자산운용업계가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투협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